

제 4 교시

##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2

제 [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자네가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물었기에 답하고자 하네. 사람의 본성은 본래 하늘로부터 부여받아 순 선하다네. 이러한 본성은 네 가지 마음으로 드러날 수 있다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의를 부끄 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라네. 이러한 마음은 어린싹과 같기에, 잘 간직하고 꾸준히 길러나가면 누구든지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 격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을 걸세.

- ① 순선한 본성을 형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 ② 도덕적 인간이 되기 위해 타고난 마음을 함양한다.
- ③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 모든 분별에서 벗어난다.
- ④ 곤경에 처한 사람의 일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다.
- ⑤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성인이 제정한 예법을 따른다.

2.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 서술형 평가

◎ 문제 :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는 자유를 누리며 어떠한 종속 없이 상호 간에 평등하다. 하지만 공통된 재판관의 부재는 재산의 보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인간은 정부의 확립된 법이라는 피난처를 선택하는 것에 동의한다.

을 : 공통의 권력이 없는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이다. 이러한 가혹한 상태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은 인간이 지닌 정념과 이성에 있다. 사회계약으로 탄생한 지상의 신은 강대한 권력과 힘으로 모두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만들어낸다.

##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보았고, ㉡ 자연 상태에서는 재산 보존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회계약을 체결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을은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공포와 같은 정념으로 인해 이성적 능력을 상실한다고 보았고, ㉣ 사회계약 이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치자에게 정치권력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갑, 을은 모두 ㉤ 개인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자 사회계약을 맺어 국가를 수립한다고 보았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류를 저버리는 극단적인 민족주의도, 동료 시민에게 냉담한 극단적인 세계 시민주의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역적 헌신을 요구하는 세계 시민주의’를 옹호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지역의 일원이자 인류의 일원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공존해 나가야 합니다.



- ① 세계 시민이라면 민족에 대한 소속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 ②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은 지역적 헌신과 양립 가능하다.
- ③ 타 문화를 가진 사람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
- ④ 삶을 이루는 공동체가 단일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인류애 실천을 통해 극단적 민족주의의 폐단을 막을 수 있다.

4.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모든 것은 고정됨이 없으며 끊임없이 변화[無常]한다. ‘나’라고 하는 존재도 오온(五蘊), 즉 신체[色], 느낌[受], 생각[想], 형성[行], 의식[識]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요소가 일시적으로 결합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오온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므로 불변의 자아가 없음을 깨닫고 모든 집착을 버림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 &lt;보기&gt;

- ㄱ. 오온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ㄴ. 육체는 소멸하지만 생각과 의식은 불멸한다.
- ㄷ. 영원한 자아는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 ㄹ. 고정된 실체가 있음을 파악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5.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제거된다면, 단순한 음식도 우리에게 사치스러운 음식과 같은 쾌락을 준다.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불안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을 : 쾌락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연과 인간의 본성인 이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려 하지 말고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면 평안해질 수 있다.

- ① 갑 : 고통의 부재와 쾌락의 향유는 서로 무관한 것이다.
- ② 갑 : 모든 자연적 욕구가 제거되어야 쾌락을 누릴 수 있다.
- ③ 을 :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 ④ 을 : 쾌락에 휩쓸리지 않도록 이성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 행복은 욕구를 절제하는 태도를 벗어날 때 실현된다.

## 2 (윤리와 사상)

# 사회탐구 영역

고 2

6.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경쟁 체제는 국가가 제정한 법을 필요로 하지만 그 법이 자유로운 경쟁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경제 계획은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주의의 약속은 우리를 노예의 길로 이끈다.</p> <p>을: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유효 수요 부족의 문제는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시장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p>
(나)	<pre> graph TD     Start[사상가 갑, 을의 입장] --&gt; A{A}     A -- 예 --&gt; B{B}     B -- 예 --&gt; G[갑의 입장]     A -- 아니요 --&gt; C{C}     C -- 예 --&gt; E[을의 입장]     style Start fill:none,stroke:none     style A fill:none,stroke:none     style B fill:none,stroke:none     style C fill:none,stroke:none     style G fill:none,stroke:none     style E fill:none,stroke:none     style Legend fill:none,stroke:none     </pre> <p>&lt;범례&gt;      ━━━━: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사상가의 입장</p>

- <보기>
- ㄱ. A: 정부는 사유재산제와 시장 경제를 보장해야 하는가?  
 ㄴ. B: 정부의 사회주의적 계획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ㄷ. B: 정부는 자유 경쟁 원리의 실현을 위해 힘써야 하는가?  
 ㄹ. C: 정부는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7.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p>갑: 큰 도(道)가 사라지니 인(仁)과 의(義)가 생겼고, 지혜가 나오니 큰 거짓이 생겼다. 자연의 도에 따르는 무위 자연(無爲自然)의 삶을 살아야 한다.</p> <p>을: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내고 예(禮)로 돌아가면인이 이루어진다.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도 세워주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면 남도 이루게 해준다.</p>
---

- <보기>
- ㄱ. 갑: 인위에 얹매이지 말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  
 ㄴ. 을: 도덕규범에 따라 자신의 욕심을 절제해야 한다.  
 ㄷ. 을: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ㄹ. 갑과 을: 통치자는 인과 의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8.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지니고 있어 이성적 사유를 하고 언어를 정교하게 구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동물은 정신을 전혀 갖지 않아 이성이 없고 언어를 구사할 수도 없다. 동물은 기관의 배치에 따라 작동하며 이는 시계가 작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① 인간은 육체만을 지니는 존재이므로 자동 기계와 같다.  
 ② 동물과 달리 인간은 도덕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언어 능력의 차이로 인간과 동물을 구별 지을 수는 없다.  
 ④ 인간과 동물 모두 정신을 지니므로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⑤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이성이 없는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

9.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사회의 기본 구조와 제도는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정의의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정의의 두 번째 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합당한 기대가 가능하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는 직위와 직책에 결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① 사회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  
 ② 개인의 자유는 절대로 제한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③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불평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기본적 자유는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⑤ 다수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소수의 기본적 자유를 규제하는 것은 정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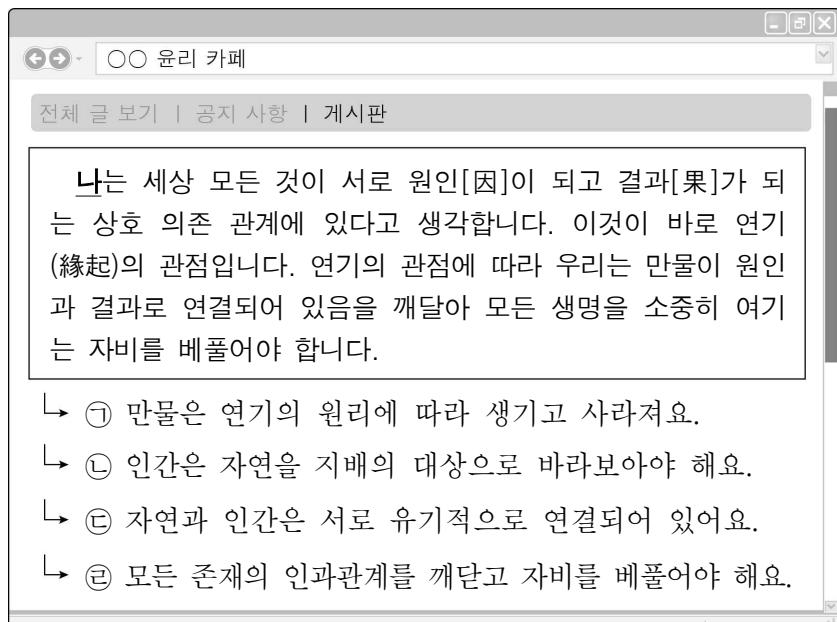
10.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평화에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가 있다. 소극적 평화는 물리적 폭력과 같은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적극적 평화는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차별이나 빙곤 같은 구조적 폭력과, 다른 유형의 폭력을 합리화하는 문화적 폭력도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직접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를 넘어서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적극적 평화가 진정한 평화이다.

- <보기>
- ㄱ.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다.  
 ㄴ.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 폭력이 사라져야 실현될 수 있다.  
 ㄷ. 비의도적인 구조적 폭력은 진정한 평화 실현을 저해한다.  
 ㄹ. 문화적 폭력은 다른 폭력을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 그림은 인터넷 게시판 화면이다. 밑줄 친 ‘나’의 입장을 지지하는 댓글만을 ① ~ ⑤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①, ② ② ①, ④ ③ ②, ③  
④ ①, ③, ④ ⑤ ②, ③, ④

12.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정치가와 대화를 나눈 후에, 나도 그 사람도 선(善)을 사실상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보다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알지도 못하고 또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많은 부를 쌓는 데 몰두하기보다 영혼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무지를 깨달아 참된 앎을 추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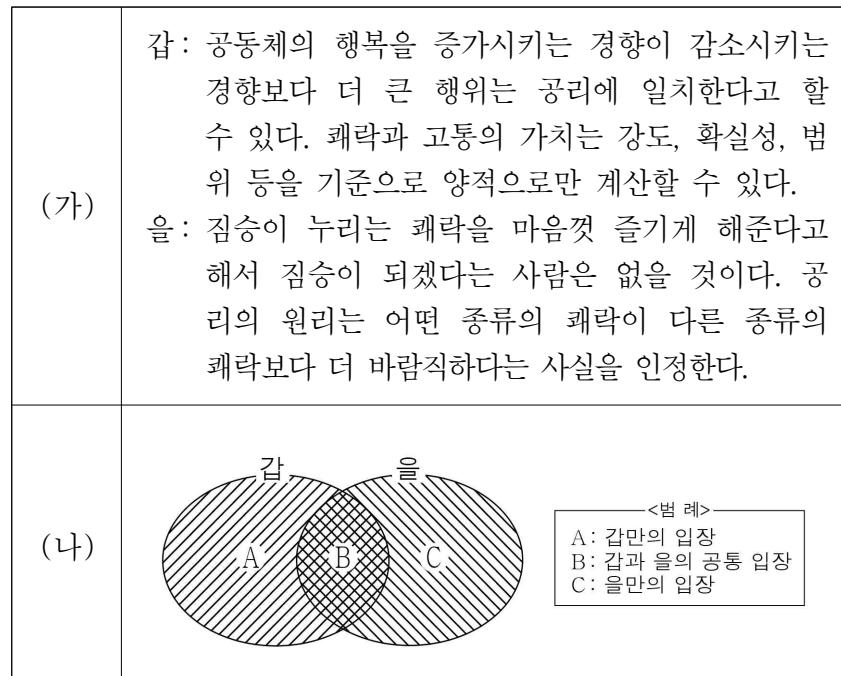
- ① 현명한 사람은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추구한다.  
② 어떠한 노력 없이도 누구나 참된 앎을 얻을 수 있다.  
③ 영혼의 수련에 관심을 가지고 선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④ 무지를 자각하여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⑤ 선을 몰라도 선을 알고 있다고 믿으면 현명한 사람이다.

13.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전쟁, 강자나 다수의 횡포와 같은 것은 천하의 해(害)이다. 어진 사람은 반드시 천하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 천하에 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데 힘쓴다. 천하의 해는 남을 미워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여[兼相爱] 자기 자신과 나라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서로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서로를 이롭게 할 것[交相利]이다.

- ① 자국에 이익이 되는 침략 전쟁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②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③ 어진 사람은 천하의 이익을 따르지 않고 의로움만을 따른다.  
④ 천하의 해는 사람들이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기에 발생한다.  
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야 한다.

14.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기>
- ㄱ. A: 감각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은 질적 차이가 없다.  
ㄴ. B: 옳음의 기준은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 증진에 있다.  
ㄷ. B: 공리의 원리를 통해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킬 수 없다.  
ㄹ. C: 쾌락을 평가할 때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5. 다음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견해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신문 ○○○○년 ○○월 ○○일  
칼럼

최근 전쟁과 같은 국제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문명적·민족적 자의식의 강화로 인해 문명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한 어느 학자의 주장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러나 문명 간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소통의 부족과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화를 통해 문명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문명의 공존과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 <보기>
- ㄱ. 이질적 문명들이 존재해도 국제 평화 실현이 가능하다.  
ㄴ. 다른 문명에 대한 이해는 문명의 공존 가능성은 높인다.  
ㄷ. 문명들을 이분법적으로 보아야 문명의 공존이 가능하다.  
ㄹ. 문명 간의 교류를 최소화하여 문명의 충돌을 피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4 (윤리와 사상)

## 사회탐구 영역

고 2

16.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원조의 의무를 실행하는 최선의 방법이 사회들 간의 경제적 및 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를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 ① 원조를 통해 고통받는 사회의 자유를 확립할 수 있는가?
- ② 원조의 결과로 원조 대상국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가?
- ③ 원조를 통해 국제 사회에 차등의 원칙을 구현해야 하는가?
- ④ 원조의 주체는 원조 대상국의 정치 문화를 고려해야 하는가?
- ⑤ 원조의 대상국에 빈곤이 존재해도 원조를 중단할 수 있는가?

17.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갈등 상황에서 개인의 주관적 판단은 보편적 규범으로 성립될 수 없지만, 합리적 의사소통 과정을 거쳐 보편적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담론 참여자는 합의한 결과를 의무로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합리적 의사소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논의에 참여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원하는 바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담론 참여자는 논쟁의 절차를 준수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바를 진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 ①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아야 한다.
- ② 담론 참여자는 소수의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 ③ 담론의 효율성을 위해 모든 규범을 다수결로 정해야 한다.
- ④ 담론에서 상대방 설득을 위한 거짓 진술은 허용되어야 한다.
- ⑤ 담론을 통해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규범을 도출해야 한다.

18.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개인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부분이 있다. 나의 활동에 어느 누군가가 개입하여 간섭하지 않는 만큼 나는 자유롭다.

을: 개인의 자격만으로는 선을 탐구할 수도 없고 덕을 실천 할 수도 없다. 나는 나의 가족, 나의 도시, 나의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부채와 유산, 기대와 책무를 물려받았다. 이것들은 나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한다.

- ① 갑: 간섭받지 않는 영역이 축소되면 자유의 영역이 확대된다.
- ② 갑: 개인적 자유에 대한 법적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 ③ 을: 공동체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 ④ 을: 덕은 공동체의 역사적 맥락을 초월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 ⑤ 갑과 을: 공동체의 전통과 무관한 도덕규범만을 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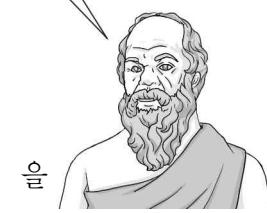
19. 다음은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통치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라고 피지배자에게 선언합니다. 강한 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통치자가 되므로 강한 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곧 정의입니다.



갑

정의는 덕이고 지혜이며, 부정의는 악덕이며 무지입니다. 통치자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정의라고 말한다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환자를 위하듯이, 통치자도 피지배자의 이익을 위해 해야 합니다.



을

- ① 갑: 법은 국가 구성원 전체의 이익 실현을 위해 제정된다.
- ② 갑: 정의는 보편적 진리에 기반하며 누구도 규정할 수 없다.
- ③ 을: 정의와 부정의는 이성이 아닌 감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④ 을: 통치자는 자기 이익을 통치의 준거로 삼지 않아야 한다.
- ⑤ 갑과 을: 정의는 피지배자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지 않는다.

20.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질문에 대해 제시할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정의에는 일반적 정의와 부분적 정의가 있다. 일반적 정의는 공익을 목표로 삼아 제정된 법을 준수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웃과 관련된 선(善)이다. 부분적 정의는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분배적 정의는 각 사람의 가치에 따라 마땅한 뜻을 분배하는 것이고, 교정적 정의는 손해와 이익이 동등해지도록 바로잡는 것이다.

	질문	대답
①	각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예
②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보다 클수록 더 정의로운가?	예
③	부분적 정의는 비례적인 것으로서 각자가 자신의 뜻을 가지도록 하는 것인가?	예
④	정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추구하는가?	아니요
⑤	일반적 정의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법을 따르는 것인가?	아니요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